

4 뉴스

강의계획서 입력 97% 전년 대비 10% 상승

양세빈 기자 abok29@khu.ac.kr

【서울】 희망과목답기(희과답) 기간이었던 지난 1월 14일,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강의계획서 입력 비율이 97%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2023학년도 1학기 강의계획서 입력 현황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서울캠에서 진행하는 강의는 총 2,311개로, 이 중 90개는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않았다. 다만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의 중 23개는 졸업논문이나 독립연구, 독립심화학습과 같은 자유이수교과였다. 이밖에도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강의는 71개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의계획서 입력 비율인 84%를 기록한 간호과학대학은 “현재 강사 채용 중으로 강의계획서 일부가 입력되지 못했다”며 “미입력된 강의 대부분은 실습과목으로 일정 변동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학기에 비해 나아진 수치다. 지난 학기에는 희과답 이후에도 강의계획서 입력 비율이 84%에 그쳤다. 이에 우리신문은 강의계획서 미입력 문제와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강의계획서 미입력·변경…학생들 불만 토로/대학주보 온라인(2022.08.30.))

학사지원팀은 “강의계획서를 미입력한 전임교원의 교수 업적평가 점수에 차등을 둘기에 입력 비율이 상승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부터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교강사는 교수 업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는 강사의 재임용 심사에만 반영되는 평가항목이었다. 그러나 교수 업적 평가에도 강의계획서 입력 여부가 포함되면서 모든 교강사가 강의계획서 미입력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됐다. 해당 내용은 교강사의 강의계획서 입력 화면에도 자세한 안내가 추가됐다.

학사지원팀은 “입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의계획서 미입력에 따른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해당 의뢰를 통해 지난 12월, 교무팀에서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안에 강의계획서 미입력 전임교원의 교수업적평가점수를 달리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학기에도 단과대학 행정실과 소통하며 강의계획서 미입력 비율을 검토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희과답 전까지 강의계획서 입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입력 강의에 입력 독려 요청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 또한 “교수님들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강의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교무처에 미입력 강의 목록을 요청하거나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 미입력 강의를 확인하면서 강의계획서 입력을 독려했다”며 “97%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 본부와 소통하며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월드비전에 1차 긴급구호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진=김미르 기자)

튀르키예 기부금 전달돼

이수현 기자 dltingus011208@khu.ac.kr

지난 2월 22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경희대학교 구성원 모금 운동’ 1차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1차로 전달된 모금액은 10,000,000원으로, 기부처인 월드비전에 전달됐다.

이번 모금 운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됐다. 양 캠퍼스(양

캠) 총학생회(총학)와 교직원,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양캠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동문 등 학내 구성원 전체를 모금 대상으로 했다.

이에 지난 2월 10일부터 모인 금액은 12일 16시 기준 총 10,648,927 원이었다. 기부자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동문, 교직원, 익명 기부자 등으로 다양했다. 월드비전으로 전달된 모금액은 방수포, 난방기, 연료, 긴급텐트와 같은 구호품 지원과 현장 수습 이후 예정된 어린이 대상 미술, 음악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제캠 총학 문정식(중국어학 2018) 회장은 “모금 운동에 동참해준 구성원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모금 운동은 1주 후에 종료될 예정이니,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 총학 채희선(행정학 2020) 부회장은 “빠르게 지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금 기간을 1달로 잡아 기간 동안 횟수를 나누어 모금액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모금액 전달 기부처 선정에 대해서는 채 부회장은 “월드비전의 경우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두 지원하고 있어 1차 모금액 기부처로 선정했다”며 “튀르키예에 비해 지원이 더딘 시리아의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변동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기부금 전달 이후 공개된 총모금액은 지난 3월 2일 16시 기준 총 2,258,765원이다. 모금 운동은 오는 3월 10일까지 예정돼 있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2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지원자격

- 경희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학년 무관)
-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2023년 3월 17일(금)
서류제출 마감

모집전형

- 신입 취재(0명) (3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경력직(0명) (대학주보를 포함한 학보사에서 정기자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성 언론사에서 인턴 직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선발일정

- 1차 서류 제출 마감 : 3월 6일(월) ~ 17일(금)
- 2차 면접평가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지원방법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